

조선해양기자재 엔지니어링 지원 본격

**도 인프라 구축...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설계 등 지원
재원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 제작 관련비용 감소 기대**

전북 도내 중소 조선업체들의 엔지니어링 지원을 위한 '조선해양기자재 엔지니어링 지원 사업'이 막바지 구축 작업을 밟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조선해양기자재 엔지니어링 인프라 구축 사업은 2017년 7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도내 조선산업 위기에 대응하고 산업생태계를 재건하고자 지난해 9월 산업부, 전라북도, 군산시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지원대책 사업으로 총사업비 68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전북 조선해양기자재 엔지니어링 인프라 구축 사업은 선박 건조의 핵심인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집중 지원하고 조선기자재업체의 원가절감, 품질경쟁력 향상, 기술고도화를 도모한다.

조선은 대표적인 소품종, 주문생산 방식이고 고가의 전문장비가 필요한 산업 분야로 복합적인 변수를 축적하고 변화하는 고도의 엔지니어링이 필요하지만 자체 설계능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조선업체는 서울, 부산 등 외지에서 설계를 도맡아 제작해 관련비용의 20% 유출비용이 높았다.
특히 선박용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가 수억원에 달하는 고가인 데다 해당 업체에 2~3만 원에 이

며 고급 설계인력의 인건비도 6.7천만 원에서 1억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핵심인프라 구축을 통해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설계 및 부가 기술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해양기자재 엔지니어링 지원인프라라는 크게 기조데이터 평가시스템, 엔지니어링 지원플랫폼, 선박상태 데이터 수집시스템으로 나뉜다.
기조데이터 평가시스템은 인장, 압축, 굽힘 등 재료의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고 엔지니어링 지원플랫폼은 CAE(Computer Aided Engineering) 기반의 엔지니어링 지원을, 선박상태 데이터 평가시스템은 선박의 실시간 가동 특성, 선체 변형, 고장 진단 등 데이터를 확보한다.
도와 군산시는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군산 아보호텔에서 도내 조선기자재

업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조선해양기자재 엔지니어링 지원시스템을 소개하는 기술교류회를 가졌다.
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분석 결과 도내 80여개의 중소 조선해양기자재업체 중 먼저 20~30개 기업이 분석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혜기업이 확대될 것이며 연간 약 1천억원의 매출상승과 500여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희숙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조선해양기자재 엔지니어링 지원인프라 구축으로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위기에 처한 도내 중소조선업체들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겨울철 반복 빙판사고 탄소길 조성 예방한다

**도로 결빙에 대해 참사 위험
열선 설치로 제설 작업 효율
도내 대상지 추가 목소리 높아**

겨울철 반복되는 빙판길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북도의 탄소설유 일종의 열선을 도로에 설치하는 일명 '탄소길 조성 사업' 확대에 관심이 쏠린다.
탄소길 조성 사업은 도로바닥 열선을 설치, 제설 작업에 효율성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북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도내 상습 결빙지역에 탄소 설유 활용, 노면 결빙 예방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7곳의 상습결빙 구간에 대해 공사를 완료했다.
무주 구천동 터널과 장수 당대터널, 정읍 말고개, 완주 마천고 일원 등 결빙 시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이 우선 대상지로 선정됐다.
도는 2020년까지 터널 일출입(온도차) 및 교량(온도 낮음) 등 상습 결빙지

역으로 그 범위를 넓히고 2021년에는 급커브, 북측도로 등 상습 결빙 및 급경사지 지역에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버스승강장, 육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 취약지역까지 탄소길로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탄소길 조성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달 15일 공주 원주고속도로에서 차량 20여 대가 미끄러져 대형 참사로 이어졌던 사고도 불행이 아닐까(도로 결빙)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전북에서도 유사 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방안전교부세 75억원과 시·군비 25억원으로 진행되는 해당 사업에 도비를 추가로 사업 대상지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도는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뒤 내년 추경 등을 통해 사업 확대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터널 일출 등 사고 위험지역을 우선 추진하고 필요시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용화 기자

도내 일제잔재 귀속재산

1천244필지, 55% 국유화

전북지역에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소유재산, 즉 일제잔재 귀속재산이 총 1천 244필지로 확인됐다.
조달청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일제잔재 귀속재산으로 추정되는 전국의 4만 1천여 필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7천여 필지를 국유화 대상으로 결정했다.
전북은 전체 1/4 수준인 1만 587필지를 조사했고 이 가운데 1천 244필지가 국유화가 필요한 일제잔재 귀속재산으로 분류됐다.
현재 690필지에 대해서는 국유화가 완료된 상태이며 554필지는 공고필지 등 국유화 조치 과정을 거치고 있다.
남은 9천 343필지는 창씨개명된 조선인이 소유했거나 수기로 쓴(세로쓰기, 흘림체) 한자의 혼돈 및 학호가 있었던 경우, 그리고 기존 국유화된 재산을 개인에게 매매한 사례 등으로 확인된 국유화에서 제외됐다.
조달청은 각 지자체와 법인, 국가기록원, 국제청 등 자료를 토대로 일제잔재 귀속재산을 조사했다.
특히 집중을 비롯한 전북지역에 대한 조사가 집중됐는데 이는 대표적인 국왕지대이거나 지하수 수탈을 위해 일본인이 많이 거주, 조사 대상 필지도 그만큼 많을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라는 게 조달청 측의 입장이다.
실용화 기자



태경그룹 에스비씨(주) 회장을 한탄소재 공장 준공식이 지난 20일 군산시 국가2산업단지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공장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태경그룹 에스비씨, 군산에 등지

약 200억 투입... 공장 준공

태경그룹 에스비씨(주)가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등지를 틀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20일 군산 제2국가산업단지에서 태경그룹 에스비씨(주)는 회장 겸 한탄소재 공장 준공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준공식에는 송하진 도지사, 강일

준 군산시장, 태경그룹 김해련 회장, 에스비씨(주) 김재국 대표이사를 비롯해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조남권 원장, 군산산업단지경쟁력향상협의회 이상기 회장, 임직원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에스비씨(주)는 2014년 전북도가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경기도 안산에서 전북 군산 국가산업단지로 이전해 온 기업으로 산화아연, 나노아연 등 산업용 기초

소재를 생산한다.

약 200억 원이 투입된 군산 공장 준공으로 20여명의 신규일자리를 창출은 물론 일반 수출규제와 맞물린 상황에서 국내 화장품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무기계 원료계에서 세계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에스비씨(주)가 15년간 지속적인 화장품 원료 소재를 연구 개발해 국내 최초 나노 산화아연이 개발에 성공하고 양산화를 실현할 생산 시스템을 전북에 마련한 것이 자랑스럽다"고 공장 준공을 축하했다. 김영호 기자

도 총 126명 정기인사 예고

전북도가 2급(실장급) 승진을 포함한 총 126명의 정기인사를 단행한다.
도는 20일 '2019년 하반기 정기인사 사전예고'를 통해 승진예정인원과 전보인사 기준 등을 공개했다.

우선 2급 이상관료 1명이 승진한다. 도가 경제와 산업분야의 대내외 위상과 대응력 강화 등을 위해 기존 일차리 경제국이 일차리경제본부로 명칭을 바꾸고 책임자 직급도 3급(국장급)에서 2·3급(실·국장급)으로 격상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한 결과다.
실용화 기자

발행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

▲정읍시 중화마을주민일동	213,000	▲정읍시 만평마을주민일동	200,000
▲유전마을주민일동	342,000	▲신원마을주민일동	157,000
▲용두마을주민일동	270,000	▲신우마을주민일동	200,000
▲가평마을주민일동	320,000	▲내정마을주민일동	460,000
		▲상하마을주민일동	252,000
		▲용곡마을주민일동	303,000
		▲상봉마을주민일동	300,000
		▲남원 송동보전지소 직원일동	57,000
		▲송동면 송동초 학생일동	155,250
		▲김제시 성리마을	318,000
		▲봉곡마을	150,000
		▲대평2마을	817,000

● 모금기간 : 2020년 1월 31일(금)까지
● 성금계좌 : 전북은행 505-13-0344512
 계 301-0116-969571
● 예금주 : 전북공동모금회
● 문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
 기부상담 전화 080-890-1212

訃 告

이 정 윤(전 전주지법부 이사관)모친이신 한옥순님께서 2019년 12월 22일 소천 하셨습니다. 삼가 알려드립니다.

2019년 12월 22일

- ◎ 빈 소 : 전주뉴타운 장례식장 2층 VIP실
- ◎ 발인 일시 : 2019년 12월 24일 오전 9시
- ◎ 장 지 : 남원시 사대면 선영하

아들 : 이 정 윤 (전 전주지법 부이사관) 며느리 : 송 영 이(의사)
정 일 (자영업) 이 흥 남
상 철 ((평주대 이사) 이 현 숙

딸 : 계 속 사위 : 김 정 수(전 전북대행정실장)
차 현 김 백 수(전북도민일보 회장)
현 숙 호남고속 회장)
화 은 오 정 규(전 금호타이어 근무)

손 : 영 규, 석 규, 청 윤, 주 영, 지 인, 지 숙, 지 영

※개별부고 생략

호원대학교
HOWON UNIVERSITY

7월 12일
내일을 위한 청사진!

HOWON UNIVERSITY

입학문의

www.howon.ac.kr
1588-9779

원서접수기간 **2019. 12. 26목 ~ 12. 31화**